

## 의료관광 거대시장 증동을 잡아라!

지난 5년간 한국을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 의료관광객은 연평균 174%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도 1,537만 원으로 191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중동지역이 의료관광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프리미엄 고객인 중동지역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웰빙이 결합된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형병원 진출을 확대하여 의료기기 관련 상품의 수출 확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 방한 아랍에미리트(UAE) 의료관광객 급증

□ 방한 UAE 환자 수는 지난 5년간(2009~2014) 연평균 17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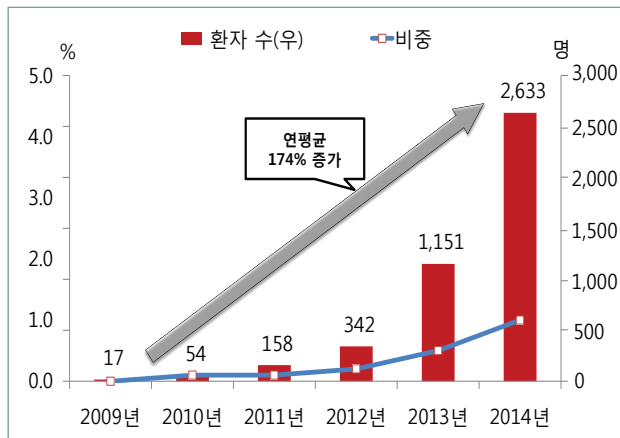
○ 2014년 한국 의료를 이용한 UAE 환자 수는 전년 대비 128.8% 증가

– 한국 정부와 아부다비보건청(2011년 11월), UAE군(2013년 4월)과의 환자 송출 협약 체결 이후 빠르게 증가

\* UAE 국비 송출환자 : ('11) 1명 → ('12) 89명 → ('13) 351명 → ('14) 806명

\* 국비 송출환자 진료수입 : ('11) 560만 원 → ('12) 36억 원 → ('13) 210억 원 → ('14) 350여억 원

방한 UAE 환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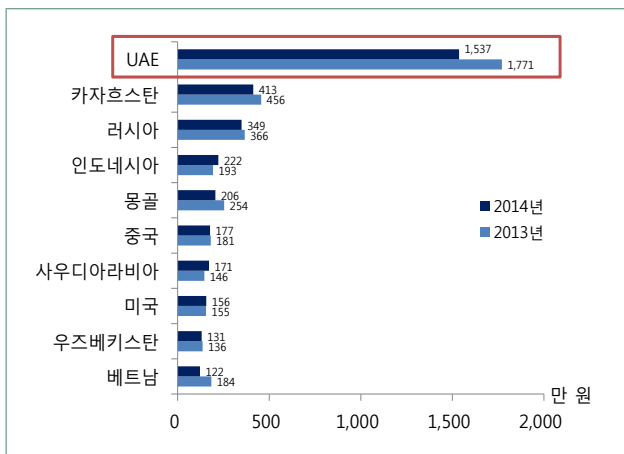
주요 국적별 방한 외국인환자 수 순위(2014)

순위	구분	환자 수(명)	비중(%)
1위	중국	79,481	29.8
2위	미국	35,491	13.3
3위	러시아	31,829	11.9
4위	일본	14,336	5.4
5위	몽골	12,803	4.8
6위	카자흐스탄	8,029	3.0
7위	베트남	3,728	1.4
8위	캐나다	2,941	1.1
9위	UAE	2,633	1.0
10위	필리핀	2,03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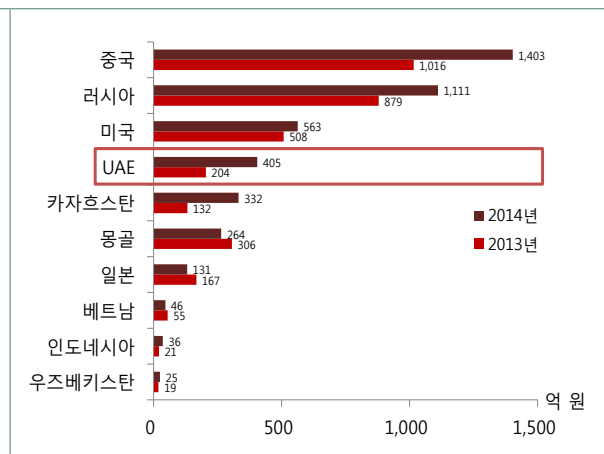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4년 기준 UAE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지출은 1,537만 원으로 191개국 중 1위
  - UAE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지출은 전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208만 원)의 7배 이상 규모로 향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프리미엄 고객군
    - UAE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환자 수 1위국인 중국(177만 원)의 8배 이상, 2위국인 미국(156만 원)의 10배 이상, 3위국인 러시아(349만 원)의 4배 이상 규모
    - 2013년에도 UAE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1,771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방한 중동 환자 평균 691만 원의 2배 이상 규모
  - UAE 환자의 총 진료수입은 2014년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 증가
    - 2014년 방한 외국인환자 총 진료수입 5,569억 원 중 UAE 환자의 수입 비중은 7.3%를 차지해 총 진료수입 규모로는 4위국

방한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지출 비교



방한 외국인환자 총 진료수입 비교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 방한 UAE 의료관광객 증가 원인

- UAE는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높고 성인병 발병률이 상승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 UN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UAE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
  - UAE의 더운 기후와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률이 상승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 WHO에 따르면 UAE 남성의 66%, 여성의 60% 이상이 비만이며, 전체 인구의 약 20%가 당뇨병을 앓고 있음

- 두바이 보건청에 따르면 35~70세 사이 인구의 41%가 고혈압을 앓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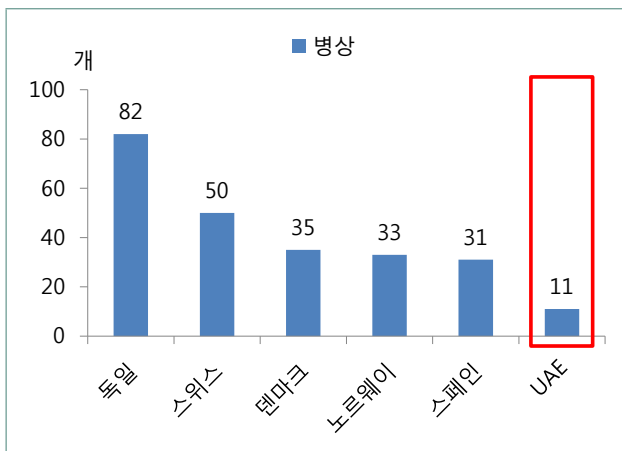
□ 그러나 UAE는 증가하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이 부족해 자국민의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의료시설의 경우 병상 수는 1만 명당 11개에 불과해 세계 최하위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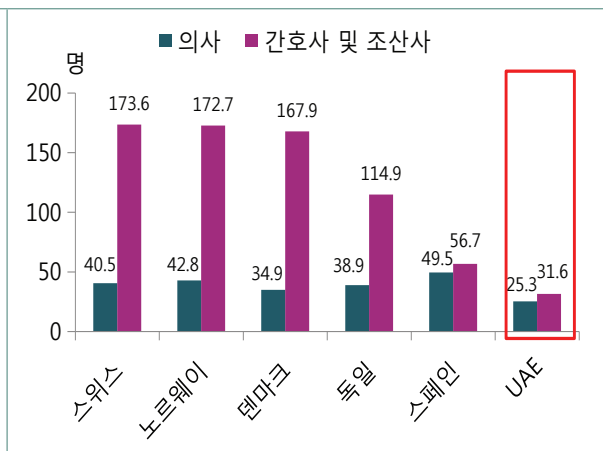
- 의료인력의 경우 의사 수는 1만 명당 25.3명, 간호사 및 조산사 수는 31.6명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선진국과 UAE의 의료시설 비교



주 : 1만 명당 시설 수, 2006~2012년 기준  
 자료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4

선진국과 UAE의 의료인력 비교



주 : 1만 명당 인력, 2007~2013년 기준  
 자료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5

○ 자국 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UAE 국민들은 해외 의료관광을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식

- 매년 13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남

\* UAE 정부는 자국민들의 해외 의료관광을 허용하고 외국에 치료를 목적으로 나갈 시 치료비를 비롯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 환자를 동행하고 여행하는 가족원 1명당 500달러를 지원

- 특히, UAE 부유층은 자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의 고급 의료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 UAE 내 한국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전통적으로 UAE 국민의 해외 의료관광지는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지역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부상
  - 아시아 지역이 유럽과 북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의료관광지로 떠오름
-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들병원('11), 보바스병원('12), 서울대병원('14), 서울성모병원('15) 등이 잇달아 UAE에 진출해 현지인에게 한국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
  - 한국 병원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 안전하고 위생적인 병원환경,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한 현지인이 입소문을 내면서 내원 환자 수 증가

**사례 1** 서울대병원, UAE 라스알카이마에 '왕립 셰이크 칼라파 전문병원' 위탁 운영

- 국내 병원이 해외 종합병원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최초의 사례
-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유수의 병원과 공개경쟁 끝에 탁월한 의료기술력을 인정받아 2014년 8월, 총 5년간 1조원 규모의 UAE 왕립 셰이크 칼라파 전문 병원(SKSH;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
- \* 왕립 셰이크 칼라파 병원은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진료에 중점을 둔 UAE 첫 3차 전문병원
- 2015년 2월 18일 공식 개원 후, 진료 시작 6개월 만에 7,000여명의 환자를 진료

**사례 2**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UAE 아부다비에 '마리나 건강검진센터' 위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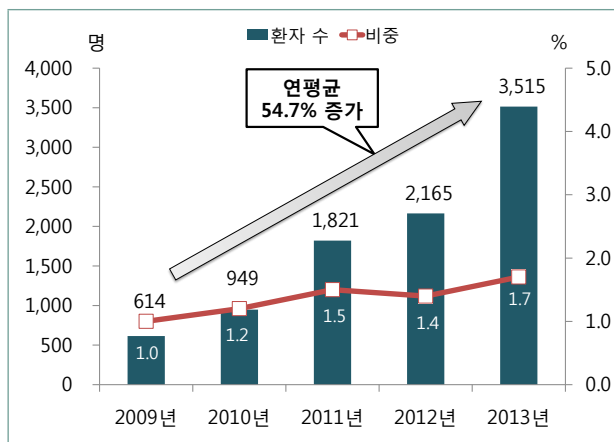
- 국내 병원 중 최초로 중동 지역에 국내 검진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담아낸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설립·운영한 사례
- 2014년 9월, UAE의 보건의료사업 지주회사 VPS 헬스케어그룹과 서울성모병원이 5년간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
- \* 동 계약에 따라 VPS는 향후 5년간 동 건강검진센터 운영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설립·운영 컨설팅비로 매출액의 10%(5년간 100억 원 이상)를 서울성모병원에 지급
- 한국형 건강검진센터인 '마리나 건강검진센터(Marina Health Promotion Center)'는 2015년 3월 6일 공식 개원
- 서울성모병원과 VPS는 향후 두바이에 2호 검진센터 설립·운영 계약 체결

### 3 시사점

□ 향후 UAE 의료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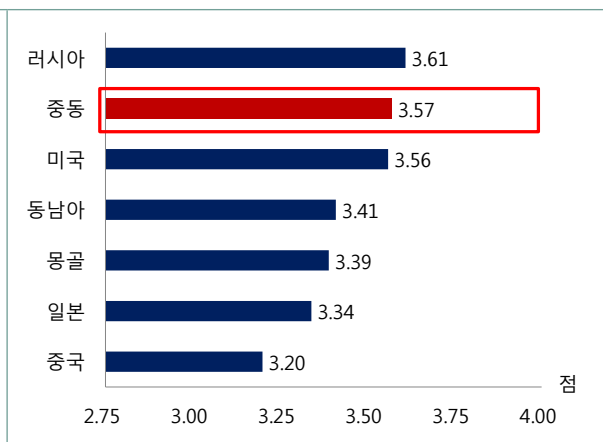
- 저가항공사 증가, 운행노선 확대 등으로 향후 UAE 의료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
  - 최근 UAE에서는 Air Arabia, Jazeera Airways, Wizz Air와 같은 저가항공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항들의 운행 노선 확대로 다양한 의료관광지로 떠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됨
- UAE 환자를 비롯하여 매년 급증하고 있는 중동 지역 환자의 유치 확대 시급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래 방한 중동 환자 수는 연평균 54.7%씩 급증했으며 이는 동 기간 전체 외국인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36.9%를 상회
  - \* 중동 환자들의 한국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3.5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 (전체 평균 3.45점)

방한 중동 환자 수 동향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 국적별 한국 의료서비스 만족도(201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그러나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신흥 의료관광지와의 경쟁 치열

- 치열해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 대비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인들의 니즈에 맞춘 경험적 가치(value) 제공이 필수
  - \* 예컨대, 고급 의료관광 수요가 높은 UAE 부유층 공략을 위해서는 병원과 호텔, 리조트가 상호 연계해 의료와 웰빙을 접목한 프리미엄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단기 성과에만 연연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분쟁 해결시스템 마련이 필요

- 중동 환자들의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언어, 종교 등 현지인들의 문화적 특성에 집중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역량 확대
  - 아랍어 사용이 가능한 의료 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 지원인력을 양성해 환자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랄 음식을 이용한 환자식 제공, 병원 내 이슬람 기도실 마련, 아랍 방송 설치, 이슬람 율법 준수 등 현지인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춘 병원환경 조성 역시 중요
- 한국형 병원을 전략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모색
  - 최근 한국 병원이 잇달아 UAE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 모두 지금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국내 병원들은 UAE를 아랍권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현지 진출지역 및 파트너를 면밀히 조사하여 중동 진출을 준비
    - \* UAE에서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설립 신청 시 UAE 국적을 가진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의료자유무역 지대인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Dubai Health Care City)는 제외됨
    - 정부는 국내 병원의 중동 진출 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파악 후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
  - 또한, UAE는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병원 수출 시 한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포함시키는 통합형 의료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역시 고려하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를 모색해야 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조원 이지영 (02-6000-5499, dididda@kita.net)  
 연구위원 이봉걸 (02-6000-5262, fengjie@kita.net)